

전쟁과 수난의식의 소설적 의미*

— 한국과 독일의 전쟁소설 비교 검토 —

金 亭 子**

목	차
1. 두 개의 전쟁과 분단의 상처	3.3. 불신시대, 전쟁의 허상
2. 2차대전과 한국전쟁	4. 전쟁과 여성
2.1. 2차대전과 독일의 야망	4.1. 인간에 대한 신념과 애정
2.2. 한국전쟁과 민족의 폐허	4.2. 도피와 자유에의 갈망
3. 폐허와 전쟁문학	4.3. 전쟁과 변모하는 여성의 성의식
3.1. 폐허의 휴머니즘적 고발과 극복의지	5. 전쟁의 상흔과 유년시대
3.2. 전쟁의 피해의식과 방향상실의 압담함	6. 통일과 화합의 미래지향성 참고문헌

1. 두 개의 전쟁과 분단의 상처

인간은 그 삶을 살면서 작진 크진 간에 ‘투쟁’이란 삶의 양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쟁이란 말을 역사적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돌려 놓는다면 ‘전쟁’이라는 언어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어째서 ‘투쟁’이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회와 사회,

* 이 논문은 1992년 연암문화재단 해외 교수 파견 연구논문임.

**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행위일까. 전쟁의 개념은 무엇이며 전쟁과 국가 간의 상호 관련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은 어떠한 근원과 동기에서 발발한 것이며 한국전쟁은 그러한 세계의 물결 속에서 어떤 의미의 맥락으로 이루어진 전쟁일까. 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문학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2차 대전을 겪은 독일과, 6.25의 전쟁을 겪은 한국은 그 시기적으로도 다소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전쟁의 동기로 보거나 전쟁의 양상으로 보아서도 격차를 가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이 전후에 '국토의 분단'이라는 엄청난 상처를 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단이라는 절망적인 아픔을 겪게 된 두 나라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문학작품들에서도 어떤 공통성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단적 상황이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문학작품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과 독일의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그 공통성과 이질성을 찾아보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 그 갈등과 고뇌, 정신의 분열, 죽음과 생명의 문제들을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인이 걸어 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고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여 보면서, 민족의 밝은 미래상과 그 전망을 밝혀 보겠다는 것이 본 연구의 근원적인 의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2차대전과 한국전쟁

2. 1. 2차대전과 독일의 야망

독일의 히틀러가 그의 흉폭한 성격과 정열을 태워 갈망한 것은 러시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러시아 정부를 분쇄하고, 경제를 파멸시키고, 러시아 국민을 노예화하며, 정치적 실체로서의 러시아를 제거하고자 했다.

유럽의 남과 북에 이르는 끝없는 독일을 구축한 다음, 동방에 있는 영토에도 독일의 주목을 끌고자 하였음이 그의 방대한 음모였다. 그는 유대인 통치의 종말과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종말이 함께 올 것이라는 확신과 열망으로 차 있었다. 그때의 히틀러는 수상이 된 3년 후, 일본을 설득하여 러시아의 많은 군사비밀이 포함된 반코민테른 조약을 체결하였다. 히틀러의 슬라브 민족에 대한 지각없는 증오가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때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나타났다.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 다음의 이정표에 떠오른 슬라브 국가는 폴란드였다. 폴란드를 위협없이 쳐부수기에는 스탈린의 목인이 필요했으므로 러시아를 파멸시키겠다는 야심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스탈린과의 동맹을 유지해 나간 것이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이것이 곧 2차대전을 확대시켜 나간 근원이 된 것이다. 사악한 스탈린은 그의 세 적국(독일, 프랑스, 영국)이 서로 지루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지치게 될 것과, 자신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간단하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게 될 것을 원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군대가 서유럽의 대부분을 가차없이 해 치우자, 스탈린은 당황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스탈린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지 3개월만에 서유럽을 정복하는 즉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러시아에 대한 히틀러의 강박관념은 영국에 대한 파괴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히틀러의 슬라브 민족에 대한 끝없는 증오는 그의 경력 중 가장 큰 실수의 하나가 되었다.

1940년 10월 무솔리니가 그리스 침략을 강행하여 실수로 돌아가자, 히틀러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히틀러의 탱크대들은 아테네로 질주하여 나치스의 십자기장을 나부겼지만 12사단에 달하는 독일 사단들은 그리스에서 곤경에 빠졌다.

또, 하나는 1941년 3월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폴 황제의 섭정이 전복되자 유고슬라비아는 그들의 히틀러에 대한 추종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격렬한 분노에 휩싸인 히틀러는 유고슬라비아를 급습하기 위해 러시아 침공을 4주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슬라브 국가들에 대한 히틀러의 개인적인 보복심 때문에 나치 지도자들은 러시아를 섬멸할 기회를 또 한 번 잃어버렸다.

여름에 확실한 승리를 할 것이라는 히틀러의 계산 때문에 독일 병사들은

얇은 군복을 입고 러시아로 들어갔다. 겨울 군복을 조달하려는 준비도 없었고, 소련의 겨울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 히틀러를 러시아에서 패배하게 한 근본 원인이었다.

세계를 독일의 영토 속에 삼켜 넣고자 했던 히틀러의 헛된 야망으로 인해 2차대전은 결국 완전한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으나, 나치즘의 독소는 분단된 독일의 동서 국토를 황폐화하여 오랜 세월 동안 절망과 분노 속에서 아우성치게 하였다.

2. 2. 한국전쟁과 민족의 폐허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하나의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가능한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스탈린의 서구에 대한 탐색적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서유럽에 대한 진출이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시대는 아시아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1950.1.12.워싱턴에서 있었던 국제신문클럽(NPC)의 공개석상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군사방위 주변을 개관했으나, 한국이 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힘을 얻은 스탈린이 남한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스탈린이 미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공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자 탐색했다는 것이다. 모택동이 스탈린의 도움없이 중공에서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에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스탈린의 명령을 중공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의 독자적인 결의에 의해 주도된 것 등의 원인이나, 이 전쟁 도발에 미군을 개입시키기 위한 트루만 대통령의 결심과 유엔경찰의 행동개시로 인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한 사실로 드러났다. 맥아더 장군은 38선을 돌파했고 압록강에서의 맥아더 장군의 중공군에 대한 진격은 중공의 군사 개입을 촉진시켰다. 마침내 중공의 인해전술로 인해 남한과 미군은 폐허의 극치를 이루고 파멸하였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미군철수를 명령했을 때, 스탈린은 아직도 생존해 있었고 전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수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불확실하게 종결되었다.

독일이 동과 서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얻은 필연적 귀결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한국인의 자의로 인한 실수가 아니었다. 물론 근원적인 책임이야 한국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으나 2차대전에서 독일에 승리한 스탈린의 야심과 이를 제지하려는 두 거대 세력이 희생된 것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쟁의 근본적인 동인(動因)이 다른 두 나라일지라도,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과 독일의 문학 작품세계에서는 전쟁에 대한 시각을 결국 같이 하고 있다.

전쟁은 원래 한 나라의 소수의 정치가 및 군인에 의해 발기되는 것이라는 클라우제비츠(Clauswitz)¹⁾의 견해대로, 2차대전으로 인한 독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유대인의 대량학살 등에 대한 독일 청년들의 강렬한 비판의식이나, 한국인들이 전쟁의 잔인한 참상에 대해 비판과 허무의식을 가짐은 동일한 양상이다. 그것은 소수의 정치가 및 군인에 의해 발기되는 ‘전쟁’에 대해 맹렬한 거부와 고발의식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의식이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쟁에 대한 ‘체험의 문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증언과 고발의 문학’으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겪은 젊은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입는 상처나 패배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패배의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서술하는 것도 있다. 이것을 치유의 문학이라고 일컫기도 한다.²⁾ 그리고 ‘전쟁소설’이나 ‘전후소

1) Clausewitz : Vom Kriege, [전쟁론], 이종학 譯, 일조각.

2) 金允植, 『한국문학의 논리』 一志社, 1974. pp. 232~3.

한국 전쟁을 다룬 소설들을 그 양상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상원은 그의 학위 논문에서 이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鄭漢淑, 『現代韓國小說論』, 고려대 출판부, 1975.

鄭韓淑, 『現代韓國文學史』, 고려대 출판부, 1983.

鄭寧愛, “6.25의 體驗과 한국소설”, 논문집 제2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6.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83(개정판), pp. 248~63.

辛卿得, 『韓國戰後小說研究』, 一志社, 1983.

金宇鍾,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pp. 315~59.

설'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독일 문학의 경우에는 'Kriegsromane'라고 하여 전쟁과 관련이 있는 소설들을 모두 총칭하여 일컫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전쟁을 소재로 하는 것을 '전쟁소설'이라 하고 한국전쟁 이후 10년을 폭으로 하여 이 시기에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전후소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후소설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의 폭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은 1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金炳翼, "6.25와 한국소설의 쟁점", 계간 '현대사' 창간호, 1980, p. 224.

丘仁煥, 『한국근대소설연구』, 삼영사, 1977.

이상원,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鄭漢淑은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의 두 가지 양상을 '부정의 논리'와 '긍정의 논리'로 나눈다. 전자는 전쟁을 아픔 그 자체로 보고 그에 의해 파멸하는 인간의 의식을 다룬 작품, 후자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광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의 인간을 다룬 작품이라 했다. 또 그는 전후소설의 주제와 관련하여 절대 순수의 상실, 인간의 파악, 인간 정신의 수호, 자유에의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千二斗는 피해자의 문학-나르시시스들, 반항의 문학-자유에의 길, 고발의 문학-폭로, 풍자의 의지, 한국적 인정주의-선외. 전통의 세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辛卿得은 전후소설을 심리적 측면에서, 회색인의 망명, 실존과 죽음의 문제, 반항과 좌절의 회화화로 분석하였다. 또 金宇鍾은 50년대 문학이 채년적 패배감이나 자조적 감상이 충만했고 비판 의식이 약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시대의 문학적 성격, 38선의 문학(황순원), 자조 의식(손창섭), 사상 전쟁과 철학성(장용학), 상한 자의 의지(이범선), 정치의 문학(박연희) 등 9개 항목으로 집약하였다. 金炳翼은 6.25 소설들을 전통적 감수성, 자아의 각성, 사회사적 접근, 역사 의식의 접근으로 나누어 살폈고, 尹柄魯는 50년대 후반의 작가들이 보인 문학적 특징을, 혼 혼한 인정, 짙은 노스탤지어, 상황 속의 인간 조건의 탐구, 사회적 부조리의 우화적 형상화, 인테리 소시민의 현실 묘사, 현실 부조리의 사실화 등 다양한 성향으로 논하였다. 구인환은 기법의 측면에서 현대소설로서의 계승적 의미를 강조하고서, 새로운 기법으로 전후 의식을 수용하려는 경향과 리얼리즘 위주의 근대소설 기법에 의해 전후 의식을 수용하려는 경향, 그리고 외적 상황 변화에는 관계 없이 전통적 생활 의식을 리얼리즘 수법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다. 또 柳鶴永은 전쟁·전후 소설의 양상을 전쟁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와 작중 인물의 갈등 양상이라는 두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는 전쟁 체험의 형상화를 전쟁의 극한 상황과 비극적 체험, 분단과 인구 이동, 전후 사회의 삶의 방식 등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전쟁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반영이란 점을 중시했다. 또 갈등 양상은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분단 인식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다루었다. 또 이기윤도 50년대 소설에 나타난 전쟁 체험을 고찰했다.

채로 문학 작품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전후소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전쟁소설’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식은 독일과 한국의 소설작품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그들은 전쟁을 어떠한 시각으로 관찰하였으며,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탐색하였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검토하고 해명해 보고자 함이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3. 폐허와 전쟁문학

3. 1. 폐허의 휴머니즘적 고발과 극복의지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독일 문학의 새로운 세대들이 출발한 지점이 바로 영점 시대(Null Punkt)이다. 모든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도 완전한 ‘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독일의 전후 제1세대가 처한 문학적 상황이었다. 그들은 국내외의 망명문학의 전통조차 물려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폐허된 상태에서 50년대의 문학으로 이어져 왔다. 이 시기의 문학을 그들은 ‘폐허문학’ 내지는 귀향자 문학, 전쟁문학이라고 일컫는다. 볼프강 보르헤르트, 하인리히 뵐, 파울 헬란, 발터 스 등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거의가 죽음과 절망, 소외, 무관심, 등의 주제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분만을 토로할 수 없음을 절감한 젊은 작가들은 과거를 극복하고, 현실을 냉철히 숙고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런 동기에서 만들어진 모임이 ‘47그룹’이라는 문학 모임이다.³⁾ 한스 리히터, 우베 슨, 쿤터 아이히 등의

3) Hans Joachim Bernhard, Klaus Schumann ; Ursula Reinhold ;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12Bd,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82.

E. Purdie ;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it einem Beitrag von Claude David ; Die Zeitenössische Literatur, Vandenhoeck & Ruprecht in Göttingen, 1968.

Otto F. Best ;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 Kontinuität u. Veränderung ;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 hrsg. von Ehrhard Bahr, Tübingen ; Franck, 1988.

신진 세대들에게 일제 아이헝거, 파울첼란, 잉게보르크 바하만 같은 신진작가들과 하인리히 뵐이 여기에 가담하였다.

볼프강 보르헤르트(Wolfgang Borchert)⁴⁾는 26세의 짧은 나이로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 죽어가기 전까지 전쟁의 폐허와 절망, 단절과 소외 등,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절규한 전쟁문학, 내지는 귀항자 문학의 대표적 작가였다. 『문 밖에서』(Draußen vor der Tür, 1947)는 폐허문학시대를 대표하는 희곡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나이가 독일로 돌아온다./그는 오래 떠나 있었다. 꺾이나 오래, 너 무나 길고 긴 시간이었으리라. 그런데 그는 떠날 때와는 달리 무척이나 변해서 돌아온다. 아니 그는 들에서 있는, 서서 새들을 쫓는 허수아비의 군사복이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오는 귀환병사의 대열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집이 없어졌거나 또는 그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쉼 곳은 저 문 밖, 그들의 독일은 저 밖의 폐허, 비가 내리는 저주의 밤, 밤인 것이다.//이것이 그대들의 독일인 것이다.

전후독일의 폐허를 이야기하는 모놀로그 형식의 이 글은 『문 밖에서』라는 작품의 프롤로그로 등장한다. 전쟁에서 돌아온 귀환병사에게는 이미 집도 없어지고 가족도, 아내도, 자식마저도 없다. 사회의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은 귀환병사의 절뚝거리는 다리와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한 눈은 현실을 직시할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어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기소리’만 해지고, 초체한 차림에 계속 울먹이기만 한다. 엘베강으로 몸을 던져 투신하려는 백크만이 강의 여신 ‘엘베’에게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강쪽으로 밀려나온 백크만이 한 소녀의 도움을 받고 그녀의 따뜻한 침대 속에서 인간적 구원을 얻고자 했으나, 전장에서 돌아온 그녀의 남편 ‘외다리’에게 쫓겨나고 만다.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해 그가 찾아간 연대장의 집은 따뜻한 불빛이

4) Wolfgang Borchert(1921. 5. 20~1947. 2. 20).

그는 1942년(21세) 반나치스, 반군적 필화사건으로 구금, 사형 구형까지 받았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사를 받고 전선에 배치되었다. 종전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부상한 몸에 황달병까지 걸려 최악의 상태였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극장 조연출, 카바레 예인(藝人) 등으로 일하며, 한편으로는 집필에 몰두하다가 병이 악화하여 26세의 짧은 나이로 타계하였다. 그가 죽은 다음 날 함부르크에서는 그의 희곡 가문 밖에서가가 초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창문으로 넘쳐나고 평화로운 삶의 즐거움에 잠겨 있었다. 벡크만은 다시 일 자리를 구해 카바레로 갔으나, 쫓나기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고 만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살던 집으로 찾아 가지만 낯선 부인으로부터 부모의 죽음을 알게 되고, 문밖에서 내쫓기고 만다. 삶과 죽음 사이를 방황하던 벡크만은 그를 따르며 이끌던 '타인'마저도 결국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것을 느낀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란 말이나!'는 공허한 모놀로그가 어둡고 황막한 무대 위로 메아리 칠 뿐이다.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⁵⁾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열차는 정시에 떠났다』(Der Zug war pünktlich.)는 전후 영점시대의 독일문단 이후로 처음 보는 '소설다운 소설'로 인정 받아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전선으로 끌려간 아들, 사랑하는 남편과 오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싸웠으며 죽었다면 어떻게, 어디서 죽었을까. 절망과 분노와 의심에 찬 그들은 이 한 권의 책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어디에도 대답은 없었다. 죽음의 땅(Przemysl)으로 떠나가는 병사들에게 기차에 오르라고 재촉하던 성직자들에게조차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출전을 앞두고 폴란드의 유곽에서 유대인 창녀 '올리나'와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리는 '안드레아스'는 한갓 어릿광대이며 실없는 존재일까.

전쟁 중의 죽음은 모두 살인이다. 이런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
그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껏 자기 생에서 울어 본 일이 없다는

5) Heinrich Böll(1917~1985).

그는 Köln에서 목수겸 조각가의 아들로 탄생했다. 1939년 대학 재학 중 육군 보병으로 입대하여 1945년까지 무려 네 번이나 부상당하고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 청춘을 군대 생활로 바친 그가 제대한 후로는 가구상의 조수로 근무하면서 다시 독문학을 전공하였다. 1949년 『Der Zug war pünktlich』로 일대 선풍을 일으키며 독일 문단에 데뷔, 『Wo warst du, Adam?』, 『Wanderer, kommst du nach Spa...』 등으로 문단의 위치를 굳히고, 47그룹의 구성원이 되었다. 『Gruppenbild mit Dame』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독일 소설에서 관념을 배제하고 단순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척하였다. 47그룹이 와해되고, 과거의 죄의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는 빈곤이 사라진 곳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인간 생활의 비인간화 과정을 문학의 소재로 삼는 등 끊임없는 진전과 기법적 혁신을 탐색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이 눈물은 인생이었다. 수다한 냇물이 만들어 낸 거센 강이었다……. 이 희미한 눈물 속에는 집시처럼 창백한 울리나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아롱거린다……. 나는 무릎을 꿇고 탐욕이 없는 사랑도 있다는 걸 내게 가르쳐 준 순결한 얼굴 앞에서 기도하겠다.

적국의 창녀 울리나 앞에서 슈베르트의 음악에 감동하고, 탐욕이 없는 순결한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는 한 독일인 병사 안드레아스에게서, 우리는 전쟁의 무엇을 깨닫고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느님의 원죄가 생명력을 빼앗긴 그 아이들에게 부과되었다’⁶⁾는 스토어쎅어(Stoessinger)의 말대로, 그들 젊은이들은 진정 원죄를 치루느라 그처럼 깊은 전쟁의 수렁 속에서 절망해야 했을까.

하인리히 뵐은 『방랑자여, 슈파로 오려는가……』(Wanderer, Kommst du nach Spa…)라는 제목으로 묶여진 그의 중단편집을 통해서도 전쟁이 모든 것을 말살시키고 파멸시킨다는 증언과 고발을 거침없이 속행하고 있다.

『방랑자여…』에서 뵐은 한 학도병의 죽음을 통해 전쟁을 고발한다. 독일민족의 정확하고 빈틈없으며 보수적인 기질을 가진 교육제도나 역사적 전통이 얼마나 허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고 그는 의문을 제시한다.

어느 지방으로 가든 조그마한 어긋남이 없이 동일한 김나지움(Gymnasium)의 구조만 보더라도 독일 민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독일 민족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하나의 큰 허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과감히 발설하였다. 소년학도병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다니던 학교의 서예실에 “Wanderer, kommst du nach Spa…”라고 써 놓은 낙서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 그에게 물을 떠다 준 소방대원 제복의 사나이기도 바로 학교의 관리인이었음을 확인하며 학도병은 죽어간다.

뵐은 『아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Wo warst du, Adam?)에서 전쟁이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만 살인을 관장하는 거대한 기구이며 조직일뿐이라고 고발한다. 전쟁은 오직 인간성의 상실과 가혹함이 절망과 허무감을 안고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우연히 만나 사랑을 느낀, 후송병사 파인할스와, 유대인 여선생인 일료나는

6) J.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갑작스런 이별을 맞아 각기 다른 운반차를 타고 떠나고 만다. 사병들을 실어나르는 운반차와 유대인들을 실어나르는 운반차는 동일한 도시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다른 방향으로 제각기 흩어져서 간다. 독일 민족과 유대 민족간의 갈등과 애증을 암시하며 이들 운반차는 각각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전선과, 잔인한 나치 수용소로 헤어져서 간다. 군복을 팔아 한낮에 여자를 사는 그레크 중위, 전선에까지 포도주를 들고 가야했던 핑크 하사, 적십자기를 믿으려 했던 슈나이더 상사… 이들 모두는 평범한 사나이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 대한 의미라든지 승전에 대한 확신감을 잃었다. 수용소 소장 필스카이트는 한 번도 여자를 가져 본 적이 없는 병적인 결벽증의 소유자이며 나치의 종족관을 광신하는 광신도이면서도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도이기도 했다.

수용소에 수감되어온 유대인 처녀 일료나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지닌 매혹적인 노래소리는 필스카이트가 맹신해 왔던 독일 종족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무너지게 했다. 필스카이트의 격렬한 내부고통은 마침내 광란으로 변한다. 그는 권총을 들어 미친듯이 유대인 여자 일료나를 쏘아 버린다.

필스카이트는 심미주의적 경향과 잔인성이 복합적으로 왜곡된 인간이다. 그는 행정적인 메카니즘과 미학애호가라는 상반된 성향이 잘못 통합되어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는 나치스 대원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탈영한 파인할스는 사복 차림으로 몰래 고향에 숨어 돌아왔지만 자기집의 대문 앞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유탄에 맞아 쓰러지고 만다. 그 유탄은 그의 조국인 독일의 군인들이 미군을 향해 쏘아대는 것이었다. 그토록 비정한 것이 전쟁이라는 고발과 함께 나치 당원의 잔인성을 무자비하게 비난한다. “Wo warst du, Adam?”이라는 제목은 카톨릭 문화 비평가인 데오도르 하에커의 가밤과 낮의 수기가에서 인용한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알리바이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우연히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나는 세계 대전에 있었습니다.” 벌이 소설의 첫장 본문에 인용한 이 부분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공격하려는 의도와, 그래도 인간에게는 아직 한가닥의 종교적 의무감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면서 인간을 변론하려는 의도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모순되는 두개의 경우 속에서 우리는 벌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느끼는 애증을 발견할 수 있다.

47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비판은 무자비하고 현실적이어서 개인의 명

에나 체면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비난할 것은 비난하고, 또 비난받을 것은 기꺼이 비난 받으려 했다.

3. 2. 전쟁의 피해의식과 방향상실의 암담함

독일의 초기 전쟁문학은 맹렬한 고발과 비판정신으로 충만하였고, 밝고 예리한 지성과 함께 인간주의적 입장에서 그 잔인성을 폭로하였다. 그와는 달리, 한국전쟁 이후에 쓰여졌던 초기의 ‘전쟁문학’은 이른바 르포르타주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을 폭로한 흥분과 감정이 앞서는 문학이었다. 1950년대의 중반 이후부터는 전쟁에 대한 자성적인 의미가 문학 작품에 반영되면서 전쟁문학이 그 깊이를 획득하기 시작했다.⁷⁾ 수복과 휴전에 이어 사회적인 수습의 중반단계에 들어서서 <자유문학> <문예> <문학예술> <현대문학> 등의 문예지와 신춘문예제도가 자리잡게 됨으로써 이들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⁸⁾ 최태웅, 김동리, 황순원, 김성한, 염상섭, 박영준, 최정희, 안수길, 유주현 등의 기성작가와 손창섭, 오상원, 이호철, 서기원, 성낙원, 장용학, 이범선, 박경수, 박정리, 서근배, 정연희, 오영수, 하근찬, 한말숙, 최인훈 등의 신인들이 ‘전후소설’이라 일컬어질만큼 전쟁의 재난을 체험적으로 직면함으로써 겪은 이야기들을 엮어 나갔다. 그들은 비인간적인 전쟁이 주는 피해의식, 가치관의 붕괴, 내면화된 전쟁의 후유증, 전후의 암담함과 방향상실, 혼돈 등을 제시하였다.

1950년대 이후의 전후소설들은 휴전이후 문학도 서울로 수복되고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자성적 의미가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들 전후소설들을 60년대까지 단층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이들 소설 속에서는 전쟁을 소재로 하되, 전쟁을 직접적으로 소설에 등장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한국 소설에서는 독일의 전후소설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비판의식이나 고발의식이 없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회의와 절망, 불안과 혼동의 의미들이 작품속에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지만, 전쟁에 대한 강렬한 비판정신이나 고발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2차대전을 일으킨 근원은 히틀러의 야심과 헛

7) 백철 : 전후 15년의 한국소설, 한국전후문예작품집, 1963

8) 이재선 : 한국현대소설사, 홍익신서, 1981

된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슬라브민족을 말살시키고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확인시키며 러시아를 유럽의 지도에서 말살시키고자 했던 한 인간의 야망으로 인해, 세계가 치루어야 했던 엄청난 비극은 파괴와 혼돈과 살인, 절망과 회의와 불안의 형태로 파급되어 나갔던 것이다. 독일민족은 적어도 이 책임을 자기들 스스로가 짊어져야 한다는 냉철한 반성과 비판의식 위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다. 영점시대(Nullpunkt)로 시작한 젊은이들의 이 강렬한 고발과 비판정신이 47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파급되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을 가진 47그룹에 대해서 마저 독일의 젊은이들은 맹렬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47그룹들의 당시 나이가 적어도 20대가 넘었거나, 군인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 역시 넓은 의미의 공범자거나 나치체제에 대한 저항을 못한 세대라는 것이다. 그들은 전쟁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비판하기는 했으나, 그 처참한 상황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고발하지는 못 했다. 1966년 미국 프린스턴에서 열린 47그룹의 모임에서 당시 24세가 된 페터 한트케는 이 모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으며, 68년에는 엔첸스베르거가 문학의 죽음을 선언한다. 이를 계기로하여 47그룹은 와해되기 시작하고 이 세대의 문학이 끝나기 시작하는 것이다.⁹⁾

한국의 전후 소설에서 강렬한 비판이나 고발 의식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진술할 바다. 한국은 한국인 전체가 세계 강국들의 대세에 밀린 피해자인 것이다. 비록 전쟁 도발자가 '북한'이라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 전쟁 도발자에 대해서 엄격한 죄상을 고발하고 문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다. 스탈린의 야심과, 이를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적대감에 휘둘려 엄청난 민족의 참극을 치루고,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을 안게 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죄상을 고발하고 비판할 확실한 근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전후소설 속에서 독일민족처럼 자신의 조국에 대한 냉혹하고 엄숙한 항의와 고발, 비판을 가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비극이요 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 한국의 전후소설 속에서는 피폐한 사회상이나 피해의식만 강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간주의가 가미되고 성실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9) Manfred Durzak, Der deutsche Roman der Gegenwart, Verlag W. Kohlhammer, Köln, 1971.

열망, 불안과 혼돈, 회의와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간들의 미래를 열어 주어야겠다는 안간힘이 한국 전후소설의 작가의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우휘의 『불꽃』(1957)은 한국의 전후소설 가운데서 전쟁터가 그 직접적인 소재로 나타나는 대표적 작품이다. 직접 전쟁을 치루는 장면은 없이, 전쟁도 중에 나오되었거나 탈주한 병사의 상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대로 전쟁의 리얼리즘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장용학은 『요한시집』을 통해 전후의 파폐한 인간의 실존과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꼬방 앞으로 가까이 갔다. 섬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며칠 걸려 겨우 찾아낸 집이었지만 나는 아까부터 주인을 찾는 것이 무서워졌다. 귀찮았다. 발을 들어 조금 떠밀어도 말없이 쓰러질 것같은 이 따위 집에도 주인이 있어야 하기로 했다... 지붕까지 <레이송>상자가 아닌 것이 없다. 집으로 변장한 레이송 상자 속에 누혜의 어머니는 살고 있었던 것이다.

포로 수용소에서 만났던 ‘누혜’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하꼬방은 레이송 박스로 엮어 놓아, 바로 조금 떠밀어도 쓰러져 버릴 것같은 집이다. 누혜의 어머니는 아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이남으로 내려 왔다. 아들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자살했으나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노파는 중풍에 들어 아사 직전에 처해 있었다. 노파는 쥐를 잡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백년 묵었으리라 싶은 돌배나무가 육중하게 서 있는 야트막한 능선을 막 뛰어 내리려 한 순간이었다. 퍽! 벌써 시커먼 화염이 돌배나무를 뒤덮는 것과 함께 팡! 천지가 욱시를 당했다. 개미수염만한 내 숨은 그 폭풍에 눈썹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들이 쇠대로 매워졌다. 오장이 흩어져 나가는 것같은 내 몸은 언제 저 위에 폭격기가 시침을 때고 날고 있는 하늘에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여기 저기 살이 찢어져 피를 줄줄 흘리면서 닭다리를 손에 꼭 쥐 채로 ‘일요일의 포로’가 된 내 동호를 거기에서 발견하였다.

괴뢰군의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나(동호)가 전쟁에서 폭격을 당하여 여기 저기 살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는 장면은 전장의 실감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포로 수용소에서 만난 누혜는 의용군이 아니고 이북에서부터 처

내려온 괴뢰군이였다. 수용소가 난동으로 어수선해졌을 때도 누혜는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려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푸른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누혜가 철조망에 목을 매고 자살했을 때 공산주의 포로들은 그를 배신자로 몰아 잔인하게 누혜의 시신에 복수들을 가했다. 나(동호)는 누혜의 눈알을 들고,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까지 서 있도록 했다. 이데올로기의 허망함·인간성의 본질 앞에 이념이란 한갓 허무한 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이 허무한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여 희생되고, 보다 본질적인 휴머니티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폭로한 것은 박연희의 『證人』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기사를 반정부적으로 썼다고 빨갱이로 몰아 권고 사직을 하게 하는 사회는 분명 이념의 노예로 전락한 곳이다. 감옥에서 심한 각혈을 하고 병보석으로 풀린 현우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이범선은 『오발탄』에서 전후의 인간상의 피폐함과 파괴를 그리고 있다. 전후의 실직, 처절한 가난은 인간성을 변모시키고 파멸시킨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전후의 가난을 폭로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푸른 신호등을 따라 주인공 송철호는 한없이 어둠속을 뚫고 차에 실린 채 앞으로 나아간다.

3. 3. 불신시대, 전쟁의 허상

박경리의 『不信時代』에서 '진영'은 9.28수복 전야에 남편을 잃고, 1.4후퇴 때는 세살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났다.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은 전쟁을 간접적으로 목도하는 여성작가의 눈에 생생하고 처참하게 비친 광경이다. 아들 문수가 아홉살이 되던 해 갑자기 죽고 말자, 천지가 무너지는 아픔과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전후의 여성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예수도, 석가도, 결국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다.

모든 괴롭음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순결도 내 속에 있었다./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진영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으며 신에게 구원을 요청 하였던 것도 어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한다. 모든 것은 불신의 씨를 잉태하고, 인간을 속이고 음모하며 혼돈과 방황의 어둠으로 끌고 갈 뿐이라는 것이다. 진영은 질에서 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받아 나오면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워 버린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명'이며, 항거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음으로써만 인간은 존재할 뿐이라는 것. 모든 것은 인간에게 불신의 씨를 심어다 줄 뿐이란 것을 깨닫는다.

오상원은 정적(政敵)을 서로 암살하고 '모반'(謀反)하는 정치적 테러 현상을 고발하며, 유주현은 전후의 가장씨 일가가 돈과 성(性)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국회의원으로 명성을 날리는 명사의 개인생활이 불신의 거대한 덩어리일 뿐임을 폭로한다.

전쟁은 그 어느 쪽의 승리도 아닌 채 다만 민족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고뇌하게 하며 불신과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4. 전쟁과 여성

전후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쟁을 치루고 그 삶을 이끌어 나갔는가, 전후의 사회상의 변모를 이해하고 전후의 성도덕에 대한 의식을 파악함에 있어, 여성작가의 시각은 유난히 예민하고 날카롭다. 여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전쟁의 실상은 과연 무엇일까.

4. 1. 인간에 대한 신념과 애정

안나 재거스(Anna Seghers, 1900-1983)는 『제 7의 십자가』(Das siebte Kreuz)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동독의 여류작가이다. 그는 격변하는 세계의 세월을 치열하게 헤쳐나갔던 그의 생애만큼, 작품세계 속에서도 나치에 희생되는 독일 국민이나, 국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들을 그려 나갔다.

재거스는 나치의 억압 속에서도 인도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엮어 나간다.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나치 파시즘이 결코 파괴할 수 없었던 인간의 힘을 포착해 낸다. 특히 『제 7십자가』는 그의 이러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정의로운 것, 또는 인간다운 것은 무엇인가. 삶의 아름다운 질서란 진실의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쉽사리 안겨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삶의 질서와 그 진실의 알맹이는 어디엔가에서 단단하게 자리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안나 재거스의 작품에서 만나게 되는 신념이다.

안나 재거스의 『아가테 쉬바이게르트』(Agathe Schweigert)에 등장하는 여성 아가테는 전쟁 후 과로로 죽은 어머니의 일을 맡아 열성적이고 세심하게 가게 일을 맡아서 꾸려나간다.

전쟁으로 혹심한 궁핍시기가 닥쳐 왔을 때 아가테는 어머니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 둔 돈케짜를 열고 무엇이든 해 나갈 수 있었다. 아가테는 부인이 유행성 감기로 죽었으며 전쟁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절뚝거리며 그의 가게로 찾아온 쉬바이게르트란 국민병과 결혼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남편 쉬바이게르트는 전쟁에서 겪었던 상처가 워낙 깊었던 까닭에 아가테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죽고 만다.

아가테는 아들 에른스트를 혼자서 키워 나갔다. 아들 에른스트는 학교에 입학하여 우등생이 되었다. 아가테는 단추구멍 꿰매기, 짜깁기 같은 온갖 잡 일들을 맡아서 하고 야간 작업을 하며 아들을 키워 나갔다. 아들이 히틀러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할 때도 아가테 쉬바이게르트는 히틀러를 예전의 빌헬름 황제나 에베르트 대통령보다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 에른스트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마칠 때까지 어머니 아가테는 크고 작은 물건을 내어다 팔거나 그녀의 어머니가 모아둔 헝겊과 레이스들을 학교에다 조달해 줌으로써 돈을 비축했다. 아들은 고등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독일어와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으나 히틀러에 반대하는 데모에 가담하고, 나치 경찰에 쫓긴 나머지 프랑스로 도주했다. 어머니 아가테는 그 동안 아껴서 저축한 돈의 일부를 찾아가지고 프랑스로 아들을 찾아

간다. 그러나 아들은 스페인 전쟁에 종군하고 없었다. 아가테는 아들을 찾아 다시 스페인으로 간다. 스페인에서 전쟁터에 있는 아들의 짝막한 편지를 받고, 아가테는 희망에 찬 채 아들을 돌보듯 병원에서 부상병을 돌본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고 아가테는 정신을 잃는다. 아가테는 프랑코 군대에 의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고향땅의 외곽 국경선까지 추격 당했던 피난민 대열 속에 끼여서 함께 출발할 때까지 병원에서 부상병을 돌보았다. 아가테는 건디기 어려운 숨막히는 고통을 침묵과 말없는 봉사로 대신한 것이었다.

재거스는 『갈대』(Das Schilfroh)에서도 2차 대전 중 나치스를 반대하고 탈영한 독일병사를 숨겨준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한다.

베를린 외곽 '지대의 한 호숫가에는 전쟁 직전의 아버지가 죽고, 두 오빠까지도 징집을 당한 채 혼자 집안 일을 돌보며 사는 '마르타'란 처녀가 살고 있었다. 마르타는 말수가 적은 여자였으며 억척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익숙했다. 어느날 저녁 반전운동의 주도자로 수배를 받고 쫓기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구원을 청했다. 나치 수색대가 나타날 때마다 마르타는 그를 물밑에 숨겨두고 갈대잎을 통해 호흡하게 하면서 목숨을 구해 준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며 동침을 한다. 그러나 마르타가 목숨을 구해 준 청년은 도시로 떠나 버린다. 마르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면서 일에 몰두한다.

다시 돌아온 청년은 베를린의 관청에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며 마르타를 영원히 떠나고 만다. 마르타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능력조차 갖지 못한다.

전쟁에서 돌아온 오빠는 마르타를 철저히 부려먹을 뿐 아니라 마르타를 내쫓고 싶어했다. 그러나 “날 내쫓진 못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남긴 유산이 있잖아. 정 그러고 싶으면 내 뉘를 내 봐.”하고 마르타는 단호하게 말한다.

마르타의 생은 쓰라림의 연속이었다. 마르타는 피난 중에 아내를 잃고 외아들과 함께 사는 남자와 결혼한다.

재거스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개가 참을성이 많고 감정표현을 억제하며 과묵하다. 전쟁 가운데서도 억척스럽게 일에 몰두하고 내핍생활을 하는 여자들일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해진 운명을 자기편으로 말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개척해 나가는 여성들이다.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끝나도 이들 여성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억척스런 고생으로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과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할 뿐 선량하고 차분한 그들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 남아서 깨끗하게 전후의 독일을 이끌어 나간다.

4. 2. 도피와 자유에의 갈망

잉게보르크 바하만(Inngeborg Bachmann, 1926~1973)은 심리학, 법률학, 독문학 및 철학을 전공한 47그룹의 여성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언어에 대해 절망하고 회의하며 진실하고 정당한 언어에의 갈망에서 문학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과거 및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와 자유에의 갈망으로 차 있다. 바하만이 가졌던 새로운 언어에 대한 동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유한성과 기존규범. 그리고 질서를 극복하고 초월해 보려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모라로 가는 한 걸음』(Ein Schritt nach Gomorrha)이나 『만하탄의 善神』(Der gute Gott von Manhattan, 1976)은 원형적인 남녀관계나 성(性)과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시도해 보려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형적인 남녀관계란 인간에게 지워진 모든 사회적, 실존적인 구속을 의미한다. 이들 작품에서 사랑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모두 일시적인 사랑의 형태에서 벗어나 현실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돌입하기를 소원하는 연인들이다.

『고모라로 향하는 한 걸음』의 샬롯테는 ‘마라’라는 소녀에게 향하는 동성애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재래의 사랑형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라’와 가지려던 샬롯테의 동성애적인 관계는 그들 둘 사이에 일어난 새로운 진실을 위한 어떠한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엄습해 오면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전쟁을 갖 치룬 세대의 여성들이 억척스런 고생으로 내뿜하며 참을성 많고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음에 비해, 60, 70년대를 넘어선 전후독일의 여성들은 종래의 전통성에서 탈출하고 현실을 초월하려는 자유에의 갈망으로 차 있다. 『고모라로 향하는 한 걸음』

에서 샬롯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일상적인 것들, 여성은 한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라'와의 동성연애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남자에 대한 복종으로 매사를 정돈하며 잠자리를 준비하고, 남성의 명예욕을 충족시키며,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보다 남자의 생각과 결단을 더 중요시 해야 하는 종래의 여성에서 탈피하고 싶어 샬롯에는 행복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불행에 대한 권리, 자신의 고독에 대한 권리마저 스스로 고집하려는 오만이 잠재해 있었던 스스로를 깨닫는다. "나는 어느 누구의 여자도 아니다. 나는 지금껏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규정 짓고 싶다. 그리고 나도 피조물을 만들어 참을성 있고 책임이 있는, 그림자와도 같은 나의 관여자를 갖고 싶다."고 샬롯에는 외친다. 샬롯에 자신은 남편 프란츠가 자신을 그의 피조물로 만들었듯이 누군가를 자신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싶다는 열망에 찬다. 남자들의 언어란, 그것이 여자들을 향해 사용되는 한 이미 충분히 악의에 차 있고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여자들의 언어란 더욱 악의에 차 있고 품위 없는 것이었다. '마라'라는 여인 속에서 샬롯에는 남자나 여자의 언어가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샬롯에는 마라와의 사이에 일어난 새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진실을 위한 어떠한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부딪히고 만다. 사랑이나 진실, 죽음이나 절망까지도 그것의 표현을 위한 신선한 언어가 없이는 결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도달하는 것이다.

잉게 보르크의 이러한 여성들은 『만하탄의 선신』(Der gute Gott von Manhattan)에서도 나타난다. 사랑으로서 현존하는 시간을 불사르고 현재를 초월하며 영구한 시간으로 돌아가려 했던 여성(연인)은 새로운 언어가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사랑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존의 언어 세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참혹과 절망·기아와 죽음과 살인이 자행되는 전쟁 속에서 삶을 살던 여인들은 그 속에서 절망만 할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들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삶의 바탕 속에 끈끈하게 존재하는 진실과 아름다움과 선량함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삶의 형태. 그렇게 부지런하고 묵묵하게 삶을 살아왔음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얻은 평화와 풍요로움.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평화 속에서 인간은 새롭게 삶의 본질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휩싸인다. 거기서 탈출하려는 욕망과 열망을 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 통해 나타내려 했던 잉게 보르크는 결국 새로운 언어의 창조만이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라고 깨닫는다.

4. 3. 전쟁과 변모하는 여성의 성의식

전쟁의 살상과 포화 속에서 삶을 살아간 인간의 군상들,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세태에 얽히고 설키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그들은 외적 세계나 내적세계의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런 문제들을 하인릿히 뵐(Heinrich Böll)은 그의 『Gruppenbild mit Dame』(1971)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이 작품에서 뵐은 여주인공 레니를 거쳐간 군상들이 들려준 대화나 회상을 통해 인간관계와 다양한 사회를 분석한다. 집달리, 건축업자, 토지 매매인, 실업가, 군인, 수녀, 학자, 기회주의자, 설교사... 등 많은 군상들은 독일의 경제적 재건에 따르는 고도의 성장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과거를 잊으려 한다. 현실적인 풍요에서 또 다시 퇴폐의 길로 걸어나가려 하는 독일 국민의 모습을 뵐은 폭로한다. 뵐은 과거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독일의 미래를 경고하고자 한 것이다.

여주인공 레니는 그녀의 나이 20대에 전쟁의 참극을 겪고 52세가 된 여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더러운 년!', 다 써먹은 매트리스!, 공산주의자의 창부!, 러시아놈의 애인!, 잡년!’이라고 야비하게 수군대지만 레니는 그러한 데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레니는 그의 생애를 통해 볼 때 많은 남자와 동침했으며 세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되어 인생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하자 곧 전장으로 나간 남편 알로이드가 전사하자, 레니는 다른 독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두건을 쓰고 버터를 바른 빵과 커피가루를 종이봉투에 싸들고 일하러 나갔어야 했다. 수많은 공습경보와 폭탄 세례를 견디어 내어야 했고 러시아 출신 병사를 만나 함께 가족 대피소로 갔으며 그 속에서 다시 사랑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러시아에 대한 히틀러의 증오심은 독일인들의 가슴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 러시아의 병사를 사랑한 레니는 ‘공산주의자의 창부’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레니를 위해

서 파렴치한 악한과 동침하곤 했던 레니의 여자친구 마르그레트나, 전쟁의 참상 속에서 러시아 출신 병사와 사랑을 나누었던 여성 레니에 대해 작가는 이를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극심한 세대차에도 불구하고 밝은 개방적인 성모랄을 보여주어, 전후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애정어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손창섭은 『유실몽』(流失夢, 1956)에서 전후의 인간상들을 묘사하고 있다. 동경서 모대학 예과 1학년일 중퇴한 '나'가 화자로 등장하고, 그러한 나의 눈에 비친 누이를 묘사한다. 누이는 술집작부로 일하고 있는 바람끼 많은 여성이다. 이웃집 강노인은 다섯 딸들을 두었는데 그중 차녀는 대구서 양부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삼녀는 간신히 미장원을 나와, 다달이 돈뿐이나 들여오게 되자 어떤 놈패이를 얼러가지고 인천서 살림을 하고 있었다. 네째딸은 어느 다방의 레지로 있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집에는 한달에 두세번 다녀가는 정도이다. 강노인은 제본소에 다니는 장녀의 수입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술집작부로 나가는 누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첫 남편이 아니며 그 누이가 낳은 아들은 지금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누이 대신 조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그러한 누이마저 술집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가출하고 만다.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들은 모두 허물어져가는 성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은 모두 건달이다.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신선한 존재는 강노인의 장녀인 '춘자'이다. 그녀는 가난한 제본소의 여직공이지만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미지를 안고 있다. 전후의 암담하고 피폐한 인간상이나, 무너져가는 가치관과 허무감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은 손창섭의 작품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작가로 하여금 이처럼 휘청거리는 군상들과 여인상들을 조상(雕像)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미래의 인간상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인릿히 뵈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송병수는 『썬리 킴』(1957)에서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어린 고아소년과 양공주를 등장시킨다. 썬리는 양공주인 '따링누나'에게 미군을 상대로 사람을 붙여주고 사경을 받아 먹는 소년이다. 어린 소년의 눈으로 본 양공주와 미군들의 생태를 그린 것이 특별한 감각으로 독자들의 심장을 두드린다. 소년은

서울서 소매치기나 해 먹고 살던 아이로 닳을 대로 닳은 아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유년의 순수성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 아이의 시각으로 양공주인 따링누나를 바라보며 연민의정으로 대하게 하는 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눈시울 뜨거운 인간애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본 따링누나는 아름답고 따뜻한 여성이며 가엾고 안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알록달록한 꽃밭인지, 파란 잔디밭인지? … 그런 곳에서 따링누나하고 ‘서산너머 햇님’을 신나게 부르는 꿈을 꾸었다. 예쁜 동무들도 같이 붙었다. 빨갱이가 쳐들어 왔을 때 다락에 숨어 있다가 잡혀간 아버지도 있었고 애기 젖먹이다가 폭격에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죽은 엄마의 얼굴도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눈을 떠 보니 땅구덩이다.

소년의 가슴에도 ‘저 산너머 햇님’이 꿈처럼 희망처럼 도사리고 있고, 전쟁 때 죽은 엄마와 아빠가 아직도 살아 있다. 소년의 시각에 비친 양공주 누나는 그냥 꽃밭이나 잔디밭에서 노래부르며 동심에 젖어 있는 아름다운 따링누나일 뿐이다. 전쟁은 어린애와 연약한 여성에게 치유받기 어려운 상흔을 남기고 그들을 할키고 지나갔다. 작가는 전쟁에 희생된 이들을 연민과 애정어린 시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호철은 그의 단편 『파열구』에서 전후여성들의 무너지는 성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미래를 파괴하고 밝은 세계관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미국유학이라는 것이 꿈의 실현장소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도 순결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여성 계영을 통해서 전후의 순결의식의 무너짐과 성도덕의 퇴폐함을 그리려 하고 있다. 전쟁은 보편적으로 인간성을 변모시키고 황폐하게 한다. 그 속에서도 여성은 전쟁으로 인해 유린당하기도 하고, 성의 도덕성이 피폐하기 쉽다. 그러나 안나 재거스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전쟁 속에서도 깨끗한 삶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참을성 많고 억척스럽게 독일을 지켜나가는 여성들로 부각된다. 잉게 보르크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쟁의 기억과 삶의 질곡 속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에의 갈망으로 차 있다. 전후의 여성들은 존재의 질긴 삶의 전통성과 규범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다. 전쟁을 치루면서 여성의 성도덕이 정통성에서 벗어나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가득차 있음을 빛은 레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레니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창부'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여자인가, 여기에 아무도 자신있는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벨의 전후 여성에 대한 시각이다.

한국의 전후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자들은 대개가 술집 작부이거나 양공주이거나, 순결의식이 허물어져버린 여성들이다. 전쟁은 인간의 미래를 파괴하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렸으며 여성들의 순결의식을 피폐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성들에 대해 작가는 연민의 시선을 가지기는 하였지만, 애정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성의식이 황폐해진 여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퇴폐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여성의 존재에 대해 한 가닥 연민을 느끼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러한 점이 독일 전후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한국의 여성상이 다르게 부각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쟁의 상흔과 유년시대

전쟁은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깊고 아픈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 그들은 유년시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 어린시절에 겪었던 깊은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며 그 상처를 안겨다 준 어른들의 전쟁을 비참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회상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러한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하며 전쟁을 도발하게 한 어른들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 시점에 도달한 그들은 마침내 세계로 향하는 화해와 화합의 시선으로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나, 깊고 깊은 저류(底流)로 흐르고 있는 상처의 알맹이는 쉽사리 풀려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기 마련이다.

유년시대나 청년기의 주인공들로 하여 세계와 현실에 대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면서 내적결정의 자기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형태를 일컬어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의미를 유년의 시각으로 관찰 서술하거나, 추억의 형식으로 서술하는 소설은 독일의 전후소설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사실 성장소설(Entwicklungsroman)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불확실하다. 성장소설이라고 함은 현대소설의 개념에서 볼 때 형성소설(Bildungsroman)의 변이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시대소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형성소설은 한 인물에 초점을 두고 그 개인이 사회의 규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기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요소를 띠게 된다. 그러면서도 형성소설은 교훈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한 주인공의 변화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를 함께 교화하기 때문이다. 전쟁소설로서의 성장소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소설은 하인리히 뵐의 『천사는 침묵했다』(Der Engel schwieg), 한스 베르너 리히터(Hans Werner Richter)의 『Die Geschlagenen』과 『Sie fielen aus Gottes Hand』(그들은 신의 손 밖으로 떨어졌다), 게르트 가이저(Gerd Gaiser)의 『Sterbene Jagd』, 지그프리트 렌쯔(Siegfried Lenz)의 『Duell mit dem Schatten』(그늘 속의 결투) 등이 있다. 그밖에 도 쿤터 그라스(Günter Grass)의 『Blechtrommel』(양철북)과 『Hundejahre』, 켐포브스키(Kempowski)의 자전적 소설 『Tadellöser & Wolff』와 『Uns geht's noch gold』, 여성작가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의 『Kindheitsmuster』(유년의 모범), 헤르만 칸트(Hermann Kant)의 『Der Aufenthalt』(체류) 등이 있다. 전쟁에 대한 유년시대의 상처가 끈질기게 남아 있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상처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인공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많이 쓰여졌다. 또한, 알프레트 뵐블린(Alfred Döblin)의 『Hamlet oder die lange Nacht nimmt ein Ende』(함릿 혹은 기나긴 밤은 종말을 가져오다)에서는 제3제국과 2차 대전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을 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맥켈(Christoph Meckel)은 『Suchbild』에서 2차대전 때 군인 상사를 지낸 아버지를 비판하고 그들이 모두 전쟁에 대한 공범자임을 지적한다. 에바 스키(Eva Demski)의 『Gold Kind』(황금의 아이)역시 그의

10) Manfred Durzak : Zu der Fragen Von Frau Prof. Jeong-Ja Kim Der deutsche Roman der Gergenwart.

자전적 요소가 깃들인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시각으로 본 할아버지를 통해 전쟁의 피해와 모순투성이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공범자이며, 전쟁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문할 때마다 이를 침묵으로 받아들이거나 미화하려고 할 뿐임을 비판하고 있다.

성장소설 속에서도 독일의 소설들은 비평적이며 고발적인 시각으로 쓰여지고 있다. 나치에 대한 공범적 요소를 가진 어른의 세계를 고발하고 비판하며, 아울러 전쟁을 도발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한 채 다만 전쟁자체에 대한 비판과 고발의식으로만 작품을 썼던 작가들에게까지도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장소설은 언제나 피해자로서의 전쟁을 서술하고, 전쟁 미체험 세대마저도 항상 피해자, 상처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어린이의 시각이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으로써 전쟁의 의미를 어린이의 측면에서 관찰 서술하거나 추억의 형식으로 제시한 작품들이 많다. 자기 발전과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적 작품들에서 보편적으로 주인공의 피해와 상처의 흔적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근찬의 『흰종이 수염』은 전후에 부상병이 되어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소년의 시각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아이는 학교에서 월사금을 안냈다고 몇 차례씩이나 쫓겨났다. 전쟁때 징용에 간 아버지가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어졌다. 아버지는 목수였으나, 전쟁에서 오른팔이 없어지자, 극장의 간판을 붙이고 거리를 다니며 호객 행위를 하는 어릿광대가 되었다. 흰종이 수염을 붙이고 얼굴에 분칠을 한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의 수염을 당겨보고 장난을 치자 소년은 친구들을 때려눕힌다. 아버지는 광고판을 벗겨 던지고 아들을 껴안는다. 흰종이 수염은 가슴 앞에 매달려 너풀너풀 춤을 춘다.

작가는 전쟁의 피해자인 아버지를 아이의 시각으로 서술하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전쟁의 파괴성과 피해를 환기시킨다.

김원일은 전쟁의 상처나 이념적인 분단의 상황을 제시하는데 끈기있는 일관성을 보여준 작가이다. 『어둠의 혼』은 빨갱이가 된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입는 피해와 불행을 서술하고 있다. 밥을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 인해 밥을 굶게 된다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었다. 아

버지를 중요하면서도 빨갱이란 얼마만큼 나쁜 사람들이기에 잡기만 하면 총살을 시키는지를 모르는 아이에게 있어 이념의 문제는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일일 뿐이다. 아버지가 순경에게 잡혀 지서 뒷마당에서 죽은 모습을 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절망과 공포와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다.

이제 내가 죽기 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나 큰 수수께끼를 남기고 죽어버린 아버지의 일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쎄다. 그와 더불어 나는 무엇인가 깨달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중략)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안개속 같은 신기한 세상. 내가 알아야 할 수수께끼나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나는 이제 이런 좋은 결실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며 뒤채이는 눈물을 달래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아버지의 이념을 따르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삶의 혼을 심어 준 아버지의 인간적인 교화에 동화되고 자기의 성숙을 일깨워 준 아버지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던 아이. 이 어린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의 미래에 어렴풋이 보이는 화해와 화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김원일의 장편 『노을』에서도 나타난다. 백정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살게 굴 뿐 아니라, 빨갱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보자, 아이의 가슴은 증오의 불길로 타올랐다. 그러나 아버지가 막상 불잡히게 되는 위험에 처하자 아이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여태껏 분명 아버지를 증오했었다. 그가 어려서 술이나 외상으로 마시고 개골창이라도 쳐박혀 뉘저기를 바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어디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있어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었던가.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기에 나를 매질해서 울리고 꿈기는 데도 나는 그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하며 언제까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핏줄이라면 그 핏줄이란 강물의 깊이를 나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 나는 방울 젖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그를 힘차게 불렀다.

나와 형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빨갱이며 백정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핏줄’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민족의 동일성을 되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작가는 핏줄이라는 공감대에서 남과 북의 갈등이 희석되고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의 전망을 열고 있는 것이다.

윤홍길의 중편 『장마』의 경우도 어린이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성장소설이다. 인위적인 재난인 전쟁과 천재적인 재난인 장마를 병렬 서술하면서, 사돈간인 김씨 집안과 권씨 집안이 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지만 토속적인 속신(俗信)에 의해 화해로 극복된다는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있다. 인민군을 선택한 삼촌과, 국군장교가 된 외삼촌을 둔 친가와 외가는 침예하게 대립한다. 국군장교가 된 외삼촌이 전사하고 친삼촌은 인민군이 되어 행방불명이 된 두 집안에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어린 소년은 두개의 이념의 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다. 그러나 무당이 삼촌의 귀환을 예언한 바로 그날에 집안으로 찾아든 구렁이를 보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두 사람이 모두 죽은자의 귀환으로 믿게 된다. 이것은 토속적인 속신 신앙으로 인한 믿음이다. 이념의 문제가 토속적인 신앙의 힘에 의해 극복되고 화해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정희의 『바람의 님』은 전쟁 속의 고통의 시련이 성인이 된 오랜 훗날까지도 살아 남아서 주인공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인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무언가 확실하게 기억되는 것은 없으나, 햇빛이 강렬하게 빛나는 한낮과 죽음, 그리고 까만 고무신의 기억이 성인이 된 여자의 깊은 추억 속에 살아 남아 있는 것이다. 바람이 유리창을 무성게 때리는 날이면 그녀는 집을 나서서 한없이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해매이다가 돌아오는 습관이 생겨 버렸다. 결혼 후에도 몇 차례씩이고 그 바람은 자지 않고 그녀를 외출하게 하여 며칠씩이고 방황하여 지치고 돌아오게 한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빼앗긴 후에라서야 자신은 지금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머니의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 전쟁이 일어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 당했으며 고아가 된 것을, 지금의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키워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람이 불면 한없는 기억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 했으며, 그 기억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한없는 충동으로 자신은 끝없이 가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년의 기억과 회상 속에서도 한국의 소설은 끝없이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이야기들로 충만해 있다. 아버지를 비판하고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회고

하는 순간에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과 나치즘의 동조자였다는 것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독일소설에 비해 우리의 소설은 이처럼 늘 피해와 연민 의식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전쟁의 추억을 가졌을 뿐이다.

6. 통일과 화합의 미래지향성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전후소설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분단된 조국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천착하고 그 분단의식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이념의 문제성과 수난의 깊이를 파헤치는 영역에까지 도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 골 깊은 분단의식의 문제까지 도달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민족에게도 독일민족이 이룩해 낸 화합과 통일의 그날이 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전후소설들을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탐색이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논문을 위한 연구가 심화 될수록 더욱 절감할 뿐이었다. 분단의 문제가 한국처럼 심각하지 못했던 독일민족에게 있어 분단의식을 소설화하고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루었던 소설은 많지 않았다.¹¹⁾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룬 한국의 전후소설들과 독일의 경우와를 비교 검토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분단의 상처를 안고 전쟁의 엄청난 피해 속에서 절망과 불안과 가난과 혼돈의식으로 살아야 했던 독일이나 한국의 문학작품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느냐를 살펴보는 데 미치었을 뿐이다.

독일의 전후소설들은 전쟁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과 비판의식으로 차 있다. 그들은 비판의식과 고발정신의 근저에 도달함으로써 자신들을 성찰하고 각성하려 하였다. 그것은 그들 독일민족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전후소설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그 수난과 고통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민 모두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휴머니즘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다. 인간의

11) 마르틴 발저(Martin Walser)의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유년의 변호)나 『Der Mauerspringer』(장벽을 뛰어넘는 자), 페터 슈나이더(Peter Schneider)의 『Paarung』(배우자들)들의 작품정도가 독일 전후소설에서 분단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다.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휴머니즘은 결국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정서적인 충격과 고통, 전쟁이 만들어 낸 손상된 여성적 삶의 이야기들이 전쟁과 여성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여인들이 곳곳하게 이겨나가는 무서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여성의 성의 도덕이 파괴되었을 지라도 작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려고 노력한다.

전쟁을 겪으면서 한 인간이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 및 형성소설의 경우에서도 독일의 소설들은 양심의 문제에 도달하여 가책과 뉘우침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연 두 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희생당하는 민족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지향한다.

김원일은 그의 『노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백정 아버지, 빨갱이로 전향한 아버지를 둔 감수의 한은, 그 한과 비극을 사랑함으로써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한국전쟁은 거대한 외세의 물결에 휩쓸려 희생된 흐름에 불과하다. 남과 북은 서로 간에 피해의식과 증오의 감정으로 대립되어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고난의 숙명을 겪었던 민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각성하며, 이를 우리들 스스로의 운명으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해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요, 구원받을 길이 될 뿐인 것으로 인지할 때, 한국민족은 독일민족이 이룩해 내었던 조국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Manfred Durzak ; Zwei deutsche Literaturen nach 1945, Propyläen Geschichte der Literatur, die moderne Welt 6Bd., 1914 bis heute, Propyläen Verlag Berlin.
- _____ ; Der deutsche Roman der Gegenwart, Sprache und Literatur 70, Mainz, 1971.
- _____ ; Deutsche Gegenwartsliteratur-Ausgangspositionen und aktuelle Entwicklungen. Stuttgart, 1981.
- Hans Joachim Bernhard, Ursula Reinhold ;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12Bd.,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82.
- Fried M. Harris und Robert Murphy ; Der Krieg Zur Anthropologie der Aggression und des bewaffneten Konflikts, S. Fischer Verlag, 1971.
- E. Purdie ;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it einem Beitrag von Claude David : Die zeitenssische Literatur 1890~1945, Göttingen, 1968.
- Ludwig Renn ; Krieger, Landsknecht und Soldat, Aufbau-Verlag Berlin und Weimar, 1979.
- _____ ; Anstöße in meinem Leben, Aufbau Verlag Berlin und Weimar 1980.
- Serie Politik und Landesverteidigung ; Krieg und Frieden in unserer Zeit, Militär Vel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9.
- Viktor žmegač Zdenko škreb Ljerka Sekulić ; Scripto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Scriptor Velag, 1981.
- Heinrich Böll ; Der Zug war pünktlich, Lamuv Verlag.
- Anna Seghers ; Das Siebte Kreuz, Luchterhand Verlag.
- Christoph Meckel ; Suchbild über meinen Vater,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83.
- Eva Demski ; Goldkind, Fischer Verlag, 1990.
- Christa Wolf ; Cassandra, Luchterhand Verlag, 1986.

- Barbara Frischmuth : Traum Der Literatur, Literatur Des Traums, Residenz Verlag, 1991.
- Hauff/Heller/Hüppauf/Köhn/Philippi : Methodendiskussion, Ein Arbeitsbuch 1 und 2, athenäums Studienbuch, 1991.
- Jürgen H. Petersen : Der deutsche Roman der Moderne, J. β. Metzler Verlag, 1991.
- Horst S.Daemrlich : Themen und Motive in der Literatur, Francke VerLag Tübinger, 1987.
- Christoph Buchwald und Klaus Wagenbach : Lesebuch Deutsche Literatur der siebziger Jahre, Verlag Klaus Wagenbach, Berlin, 1984.
- Heinrich Böll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1. (1947~1951) Herausgegeben von Bernd Balzer, Gertraud Middelhaue Verlag Köln.
- Propyläen Geschichte der Literatur, Die moderne(6) Welt, 1924 bis heute, Propyläen Verlag Berlin.
- Ingeborg Bachmann : Erzählungen Jahr Das drei igst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1.
- Ludwig Renn : Krieg ohne Schlacht, Aufbau-Verlag, 1984.
- Robert E.Cazden : German Exile Literature in America 1933~1950, American Librery Association, Chicago, 1970.
- 이재선 : 한국현대소설사, 홍익신서, 1981.
- 유종호 : 문학속에 굴절된 전쟁경험, 1990(계간사상, 1990, 봄호).
-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3.
- 독일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4
- 김원일 : 노을 (장편소설), 문학과 지성사, 1989.
- _____ : 달맞이꽃, 종원사, 1992.
- 윤홍길 : 장마, 민음사, 1984.